

전남, 전국 최초 출생수당 월 20만원씩 18년간 지급

전남도 10만원·시군 10만원
“국가가 나서기 전 전남이 먼저”
김영록 지사·22개 시장 군수
‘318 프로젝트’ 공동추진 협약
빠르면 8월부터 지급 가능

올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매달 20만원의 출생 수당을 18세까지 받게 된다. 출생수당 지급은 조례 제정, 예산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이나 9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내 22개 시장·군수들과 함께 전남에서 올해 태어난 출생아에 대해 18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먼저 나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도 이에 동참해 매달 2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14일 오후 왕인실에서 22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전례 없는 저출생,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은 물론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매달 전남도가 10만원, 시·군이 10만원 등 모두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318 프로젝트’는 국가·광역·기초자치체 등 3자가 출생아 0-17세까지 18년간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의 아동수당(10만원)은 7세까지만 지원되고 있다. 전남의 출생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학령기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째 아이를 가진 가정은 4320만원, 둘째 아이의 경우 8640만원, 셋째 아이의 경우 모두 1억2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현금성 지원)까지 더하면 첫째 7280만원, 둘째 1억4660만원, 셋째 2억204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은 18세까지 매달 36만원, 스위스는 16세까지 19만원, 네덜란드는 17세까지 38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생률이 1.5명 이상으로 올라왔다”며 “국가적인 위기에서 국가가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도내 22개 시장·군수들과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해주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남 차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2022년 7888명에 불과한 전남 출생아 수는 2028년 8590명, 2041년에는 1만42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0년 1.54명에서 2018년 1.24명, 2022년 0.9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남도는 출생수당 외에도 화순, 나주 등이 시작한 만원 주택의 전국 확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주거 시설 마련 등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정부가 설립할 예정인 이민청을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전남에 설치해 줄 것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출생수당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전남도는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계속 출생수당을 지원할 것이며, 매달 40만원이면 아이가 있는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출생수당 지급 대상은 전남에서 태어난 출생아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남에서 출생했다 18세가 되기 전에 양육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

하거나 아동학대 등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전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는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고 전남의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에서 대단한 결단”이라며 “이 프로젝트를 전남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만원주택을 통해 인구가 300명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전남만이 아니라 국가가 시행해야 할 제도”라며 “318 프로젝트 전남의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尹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민생·안보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예고, 잇따른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 행보에 초점을 뒀

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도 꾸려 양국 기업 간 교류도 있을 예정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일본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해당 보도에 대해 “현재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올해 성장률 2.2% 유지
물가 전망 2.6→2.5%

KDI, 수출 회복세·내수 부진 심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로 유지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소비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둔화에 따라 물가 전망도 같이 낮아졌다.

KDI는 14일 이런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내놓은 전망에서 바뀌지 않았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2.2%로 같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2.1%, 국제통화기금(IMF)은 소폭 높은 2.3%를 제시했다.

KDI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부문별로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건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내수 증가세는 약하다는 것이다. KDI는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7%로 0.9%포인트 높였다. 경상수지 흑자 폭 전망치도 기존보다 136억달러 확대된 562억달러로 수정했다.

반면 내수 부진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1.8%)보다 하향 조정해 1.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모두 부진한데 특히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 소비가 더 위축된다고 봤다. /연합뉴스

고물가에... ‘밸런타인 데이 특수’ 실종 ▶6면

KIA 캔버라 캠프 - 이범호 감독 소통 행보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남 산청 트래킹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월 16일(금)
OPEN

남구에 없던 도심숲 라이프의 시작

광주를 대표하는 교육과 남구의 가치를 높일 송암공원, 예정된 개발가치와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모두 누리세요.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 SK VIEW

- 단지 앞 초등학교! (계획)
- 광주 남구 최대단지!
- 브랜드 프리미엄!
- 6개월 후 전매가능! (당첨자 발표일 기준)

| 84m²·B·C / 108m² 총 1,575세대 |
062)364-0001

시공: 중흥건설 | SK 에코플랜트
시행업체: 새빛개발(주) | KB부동산신탁

주택지시간: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75

※ 상기 부시도는 사업승인도면상 바깥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로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경식재, 옥상부, 창호형태, 외부색채 및 마감, 포장계획, 시설물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